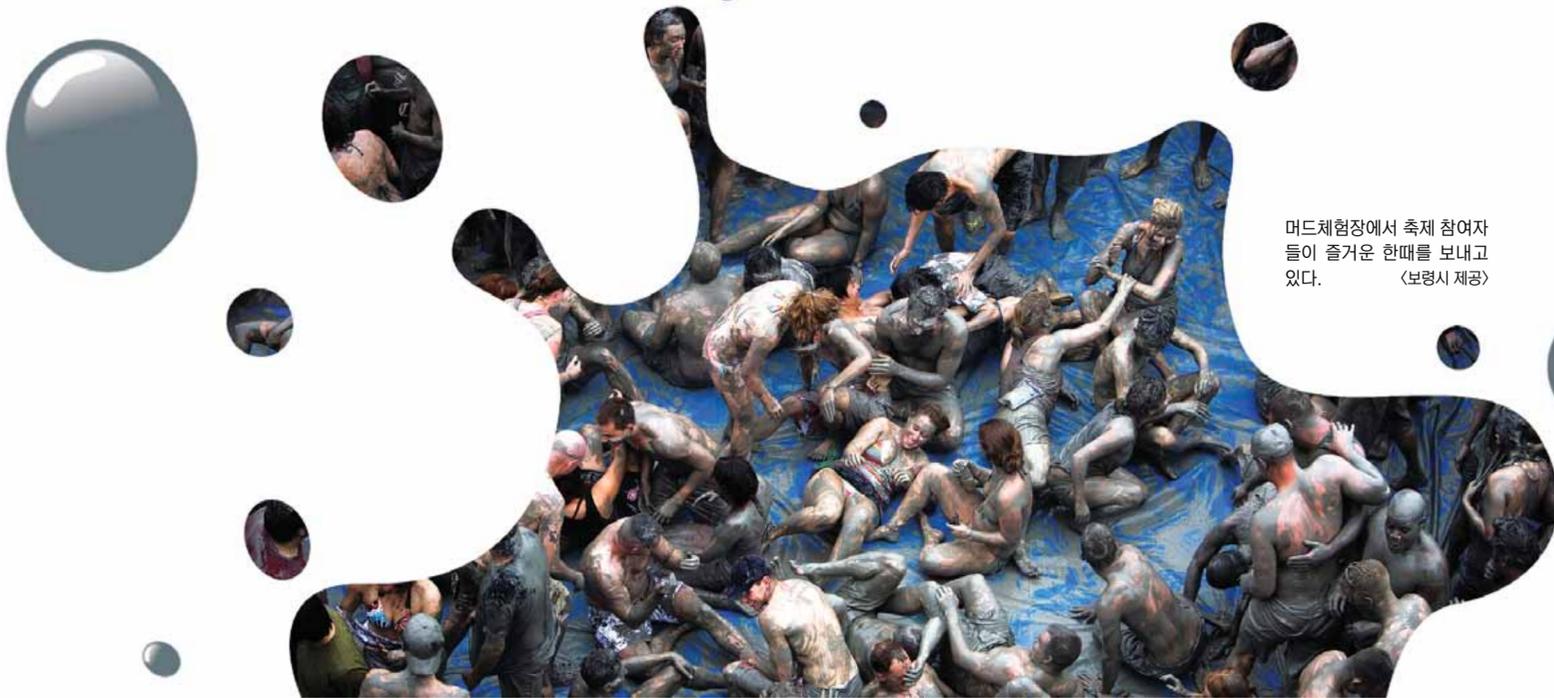


# 체면 벗고 개구쟁이처럼 굴러보자



머드체험장에서 축제 참여자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보령시 제공>



### 해수욕장 새 아이콘 쥘트랙

바다 위 52m 높이 시속 80km/h 비행 더위 썩...스릴 만끽

## 성년 맞는 보령머드축제 7월 21~30일

### 충남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한류 축제인 제20회 보령머드축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충남 대전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질 머드축제는 '가자 보령으로! 놀자 머드로!'라는 슬로건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올해로 성년을 맞는 보령머드축제는 국내축제 중 유일하게 수만명의 외국인이 찾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공해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 보령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까지 이어졌다. '여름하면 머드축제', '머드축제하면 보령'을 떠올릴 만큼 여름 대표성도 띄어 축제장을 찾는 이들에게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여정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세계인들과 함께 머드의 매력에 빠져보자.

◇머드를 활용한 축제 탄생  
보령의 청정 갯벌에서 채취된 양질의 머드는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며 게르마늄과 미네랄도 풍부해 피부노화방지, 노폐물제거 등 이스라엘 사해 머드에 필적하는 피부미용과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보령시는 지난 1996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머드산업에 뛰어들어 머드팩 등 16종의 머드화장품을 개발하고, ISO 및 미국 FDA 인증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화장품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

머드축제는 지난 1998년 7월 보령머드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 촉진, 대전해수욕장을 비롯한 각종 관광 명소를 소개하며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하기 위해 제1회 보령머드축제를 개최하게 됐다.

당시에는 소재가 이색적인 반면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30여만 명의 관광객 참여하고 3억 5000만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등 파격적인 효과를 거두며 보령하면 '머드', 머드하면 '보령'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축제인 정면에서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된데 이어, 2008년~2010년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 등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1년부터는 대한민국 명예 대표축제, 2015년부터는 글로벌유형축제 지정, 5년 연속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수상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다.

◇K-POP으로 한류 이끈다  
보령머드축제의 키워드는 '머드', '외국인', '체험장', '화려한 볼거리'이다.

치명적인 머드의 유혹으로 누구나 개구쟁이로 변신케 하는 머드축제는 ▲대형머드탕, 슈퍼슬라이드 등 12종의 에어바운스 체험 ▲셀프마사지, 컬러머드 등 머드빌리지 ▲머드몹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즈존 ▲머드캐릭터 및 비누만들기 ▲해변 풋살대회 ▲오토체험 ▲갯벌 체험 및 장애물 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대전해수욕장 머드광장과 시민담 광장 사이 차 없는 거리 왕복 2.2km 구간에 특화이동수단인 머드트램을 도입해 관광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음악·마술·마임·댄스 등 길거리 버스킹 공연이 활성화된다.

또 매년 축제기간 첫 토요일에 보령 시가지 일원에서 펼쳐지던 거리퍼레이드는 시민들의 더욱 많은 참



### 키즈존·머드난장·거리퍼레이드 씨아이·아이유 콘서트 등 퍼포먼스 마술·댄스·버스킹 공연 활성화

## 세계로 뻗는 보령 머드 올해 축제 수출... 12월 뉴질랜드서 개최 2022년 보령머드엑스포 유치전 돌입

여를 위해 금요일 오후 6시로 변경하고, 축제기간 유료 체험장에서는 DJ 및 댄스걸, 머드대표를 난사하는 머드난장, 미션 수행 등 문화이벤트를 지속 실시해 대기시간에도 지루하지 않게 진정한 놀이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관광공사의 K-POP콘서트 공모 사업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음악 쇼와는 다르게 화려한 비주얼과 노래,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멀티 엔터테인먼트로 거듭난 케이팝 스타들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SBS 플러스의 '다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 기간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세계적인 축제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光州日報 江華日報 韓城日報 釜山日報 大邱日報 光州日報 江華日報 韓城日報 釜山日報 大邱日報 光州日報 江華日報 韓城日報 釜山日報 大邱日報  
新韓道友報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씨아이 공연.

대전해수욕장의 새로운 관광 아이콘으로 자리한 쥘트랙은 백사장 위에 52m(지상 20층) 높이의 타워에서 지면까지 613m의 와이어 4개를 연결해 국내 최초로 4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스틸 만점의 신종 레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한 가타 로프에 의지한 채 맨몸으로 최고 속도 80km/h로 대전해수욕장의 아름다운 바다 위의 창공을 날며 두 팔을 벌리면 한 마리 새가 된 듯 기분이며, 뜨거운 한여름의 더위도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된다. 52m 높이의 출발대에 서면 아래가 아찔하지만 활공을 하는 순간엔 누구나 '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스틸을 맛볼 수 있다. 더욱이 서해바다의 절경인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활공하는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슴속에 남게 된다.  
20층 높이의 대전타워에는 대전해수욕장과 보령 앞 바다의 크고 작은 섬들도 을 한눈에 내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형형색색의 수영복으로 대전바다에서 더위를 식히는 피서객들의 바라보는 것으로 만으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원산도를 비롯해 삼시도, 호도, 충남에서 가장 먼 섬 외연도까지 한눈에 들어와 서해바다의 풍광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머드축제도 즐기고 시원함과 짜릿한 스릴이 있는 쥘트랙에서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것도 보령을 찾는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최의성 기자

##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 도심속의 휴식공간
-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ShinYang Park Hotel MEMBER-H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